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r Preventing Military Accidents among Active-duty Soldiers

Cheol Ho Yang¹, Sang Rok Park²⁺

¹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Daeseong-ro, Sangdang-gu, Cheongju, Korea

²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angdong College, Janghown-eup Post Office Po Box-1, Icheon-si, Gyeonggi-do,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vel and statu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within the military in Korea rapidly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which can provide basic data to be used by the military to prevent accidents involving multicultural military personnel by developing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according to age, educational level, class, and years of service. Second, multicultural experience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 experience, travel experience, event participation and frequency of contacts or military characteristics such as class and working year have positive influences on active soldiers and affec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Third, both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the number of educ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while multicultural awareness has a partial significant effect.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xperience, multicultural cognition

1. 서론

현대사회는 과거 역사에 비해 세계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 교통과 통신, 지식과 정보의 발달로 인류 생활문화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한국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중 하나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또한 단일민족국가였던 한국으로서는 큰 사건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구증가를 통계적 수치의 변화로만 볼 수 없고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생긴 문제가 위기

로 인식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것이며 민족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과 같은 정신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외국인과의 혼인, 그 자체가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었으며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장과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한국의 민족정체성의 논란,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의 형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등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중 다문화가정자녀의 군입대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는 많은 난

⁺ Corresponding author: Sang Rok Park, Tel. +82-43-879-3358, e-mail. sangrok2254@hanmail.net

관이 있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가정 형편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 교육 및 취업의 기회 등 사회적 약자로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인권문제, 양쪽문화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다문화수용성문제, 청소년기 미성숙단계의 의존성문제, 국가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차이문제 등 부정적인 인식의 차이로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우선 위험요인이 된다. 다문화 가정의 남아(男兒)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지나 자연스럽게 군(군입대 문제)으로 이어진다. 2010년 7월 다문화가정 2세의 군 복무 의무화(병역법 제3조 2항에 반하는 제65조의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입대하도록 예외규정을 개정)가 되면서 또 하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과연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군에 입대해 군 조직에 적응하면서 사건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생기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오해, 갈등, 스트레스, 불통 등으로 유발된 장병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는가, 다문화장병이 포함된 군의 전투력과 단결에 문제가 생겨 결정적 시기의 국가안보위기를 초래하지는 않는가, 현역장병들이 다문화 장병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이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의 다문화장병 군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인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려하고 노하우를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군대문화에 대한 현실을 수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개개인의 가치성향에 따라 군생활방식도 달라지고 군생활 적응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Lim, 2015: 77-78). 그러므로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구성원의 단결이 생명인 군 조직 내에서 비(非)다문화장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다문화 장병에 대한 문제해결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장병 유입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조직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과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다문화장병도 대한민국 국

군의 일원으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첫째, 다문화장병 유입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다문화장병 유입에 따른 문제점과 예상되는 사고유형을 살펴보고, 셋째, 다문화장병 유입에 대해 현역장병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측정·분석하여, 넷째, 다문화경험이 많은 장병이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다섯째, 다문화장병 유입의 증가에 따른 군의 역할과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수용성 개념

최근 외국인과의 결혼에 의한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중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혼인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등의 인구가 1,741,919명(2015.1.1.기준)으로 총인구의 3.4%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2006년 536,62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10년 동안 3.24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2015년 외국인주민자녀 중 남아(男兒)는 106,077명으로 2006년 대비 약 8배나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통계청의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2008년에서 2015년 동안의 다문화출생이 평균 2만명 정도이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가 2006년 2만 5,000여명에서 2015년 20만8천여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Yonhap News, 2016. 6. 20.). 다문화자녀의 증가는 학교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이 추가내지 강화로 이어졌으며 비다문화자녀의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교육정책이 교육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단일민족이었던 한국사회에 다인종·다문화가 빠른

속도로 유입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를 수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는데 외국은 이러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부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¹⁾. 즉, 다문화수용성 개념을 어떻게 범주화하고 그 측정개념(하위개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논의의 중심에 있는 정부의 조사연구상 연구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업무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실 다문화가족지원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 의뢰하여 한국갤럽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통계청 승인의 최초 정기조사로 전국 19세에서 74세 성인 4,000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100점 만점에 2015년은 53.95점이 나왔다. 4년 전보다 개선되고 젊은 층일수록 수용적(청소년은 67.63점)으로 나타났으며 군인이 포함된 서비스종사자는 54.29로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이 조사에서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로 보고 있다(Ahn, *et. al.*, 2012: 48). 이러한 다문화수용성개념을 바탕으로 Ahn, *et. al.*(2015)은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를 개발한 것이며 3가지 차원(관계성, 다양성, 보편성)과 8개의 하위 구성요소(문화개방성, 국민 정체성, 고정관념과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이중적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로 나눠서 조사했다(Ahn, *et. al.*, 2015: 22-23).

다문화수용성의 유사개념으로는 Bennett의 문화간 감수성 발달 모델의 다문화감수성이 있는데 ‘둘 이상의 문화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으로 본다(Bennett, 1986; Ahn, *et. al.*, 2015: 16 재인용). 또한 Hoopes는 개인의 문화학습과정을 7단계로 보고 이중 4단계인 수용·존중단계가 유사하다(Ahn, *et. al.*, 2015: 16). 차이가 있다면 다문화감수성은 주로 개인수준에서 문화 간 정체성 발달을 다루고 다문화수용성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에 입각해 주류문화 관점에서 상호존중과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밖에도 문화간 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문화 간 감수성’이라고도 하고 ‘문화 간 기민성’, ‘문화 간 유능성’, ‘다문화 효능성’ 등이 있다.

2.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

앞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Berry & Kalin(1995)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없다면 다른 문화나 종족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만들고, 부정적 편견과 차별을 가져온다(Berry & Kalin, 1995: 301-320, Ahn, *et. al.*, 2015: 15 재인용)라고 보고 있다. 즉,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이론과 함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다문화수용성 관련 이론 중 접촉이론이 있는데 이는 사회심리학자들의 집단 간 관계개선을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이질적 집단 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집단 간 긴장 완화와 편견감소에 도움을 주며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Choi, 2013: 23-24).

다음으로 편견 및 고정관념 관련 이론이 있는데 편견은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며 고정관념과 유사하게 볼 수 있고 정서적 부적응이나 차별적 태도와도 유사하다. Allport(1954)가 주장한 사회적 반영이론은 개인이 가지는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적 태도는 가족,

1) 1970년대 초부터 유럽사회의 비교를 위해 조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하고 있는 유로바로메터 조사가 있고, 유럽인의 태도, 신념 및 다양한 인구의 행동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조사하는 유럽사회조사가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사회조사의 문항 중에는 이민의 영향으로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생각, 문화, 빈곤, 범죄율, 공공예산의 영향 등을 학문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태도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본다(Choi, 2013: 27). 또한 권위에 의한 규율에서 생긴 분노와 적대감이 자신보다 약한 상대인 다문화가족에게 표출되기도 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소속집단과 타 집단 간 구분이 인지발달의 차이에서 달라지고 변화한다는 사회인지 이론,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자하는 개인의 욕구와 관련 있다는 사회적 동일시 이론, 소속 준거집단의 성원들의 행동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준거집단 이론 등이 있다(Choi, 2013: 27-29). 그리고 사회정체성에 대한 이론도 있는데 사회정체성은 상이한 집단의 존재만으로도 집단 간 배척이 발생하며 개인의 자아구조가 개인정체와 사회정체에 영향을 주어 자기집단이 우월하다고 보고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으로 나눈다(Choi, 2013: 29-33).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Bennett(1986)의 간문화적 감수성 발달이론²⁾과 Bettry(1997)의 문화적응 이론이 있는데 문화적응 이론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인의 문화적 신념이나 적응 전략(통합, 동화, 분리, 주변, 다문화주의, 용광로, 분리, 배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세계시민의식이론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화된 시대의 보편적 인권의 접근을 시도하는 세계시민의식에 핵심 개념은 상호 조화와 균형이며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적 문제에 참여의지를 갖고 해결하려는 의식과 관련된다고 보았다(Choi, 2013: 33-39).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균인을 포함한 일반국민 대상의 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의 변화, 즉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다문화 교육, 다문화 관련활동 참여, 외국인과의 접촉 등의 증가가 다문화수용성지수를 높이고 있고 특히 거부·회피정서, 세계시민행동의지, 고정관념 및 차별 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5: 4-10).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서울·경기의 대도시권 중상 이상의 가정경제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5: 10-15).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 요인은 본인의 자존감이나 자아효능감이 우선 관련되고 부모나 교사, 친구 등과 같은 타자와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높다는 결과가 많고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Lee, *et. al.*, 2014: 9-12). 그러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요인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는 Lee & Kim(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집단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개방적·관용적이고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Choi, 2013: 39-40). 그러나 직업 및 교육수준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고 상대적 비교가 어렵다(Choi, 2013: 41-42).

2) 심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고정관념, 편견, 정체성, 가치관, 사회적 관계나 거리감, 다문화 성원에 대한 위협의식, 자존감 및 자아효능감 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oi, 2013: 42-45).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있는 경우(Yang, 2009)와 강압적이고 엄하며 편견적인 환경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나타나는 경우(Lee, 2012), 민족정체성이나 단일민족주의가 강한 경우(Kim, *et. al.*, 2011), 위협의식이나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 경우 등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관련성이 있다(Choi, 2013: 42-45).

3) 경험적 요인

경험적 요인으로는 다문화교육 참여경험, 접촉, 여행, 대중매체 등이 제시될 수 있는데 대부분 경험빈도가 많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수록

2) 간문화적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의 6단계(부정, 방어, 경시, 수용, 적응, 통합)의 발달과정을 거친다는 이론.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Choi, 2013: 46-48).

4) 인구통계학적 요인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 등이 있는데 대부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연구결과가 다수인 가운데 간혹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 연구결과(Yoon & Song, 2009)도 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라는 결과(Lee & Kim, 2012)도 있으며 유교적 가치관이 다문화수용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Yoon & Kim, 2010)도 있다(Choi, 2013: 48-50).

3. 다문화장병의 군복무 현황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군에 입대하는 ‘다문화장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2015년 1월 1일 기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현황과 자녀출산율을 토대로 대략 군 내 다문화 장병이 1,000여명 군무하고 있다고 추산³⁾되며 국방부는 현 추세를 감안해 2028년부터 2032년 사이에 연평균 8,657명이 징병검사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ookbangilbo, 2016. 9. 12.). 다문화 이해 교육 군 내부강사로 활동한 육군1군단의 허일필 소령의 국방일보 기고문에 의하면 향후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의 입대는 2017~2019년에는 4,393명, 2020~2025년에는 15,45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ookbangilbo, 2016. 5. 19.). 2010년 병역법 개정 이후 2014년부터 육군 소대 전투병 배치, 2015년 4월 최전방 GOP소대 투입, 2012년 최초 부사관 임관⁴⁾ 등 다문화 장병의 입대인원의 증가 및 군의 다양한 부대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Kookbangilbo,

2016. 9. 12.). 국방부는 다문화장병에 대한 신상공개와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신상공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입대 후 별도의 현황조사 및 지속적인 연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장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⁵⁾로 사전에 다문화장병의 부적응을 막고 군 전체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fer to the Ministry of Defense Homepage, 2017). 다문화 장병의 대책 중 우선 복무여건의 개선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에 다문화관련 교육근거를 마련하였고 다문화장병 차별금지와 고충 우선처리를 시행하고 있다(Refer to the Ministry of Defense Homepage, 2017). 또한 군 내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및 다문화 가정 초청행사, 교육교재 제작,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복무제도 운영, 민간업체의 다문화장병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fer to the Ministry of Defense Homepage, 2017). 국방부는 장병들의 다문화 인식 및 차별의식 실태를 조사하고 2010년에 출간된 다문화 교육교재의 최신통계 업그레이드 및 신세대 장병에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새로 제작하고 있다(Yonhap News, 2016. 6. 20.).

2016년 6월 30일 김동철 국회의원이 요청에 의해 제출된 병무청 현안보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장병이 2016년 현재 776명으로 급증하였고 국방부 예측상 2019년 3,200명, 2022년에는 5,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Kim, Dong-chul Blog, 2016. 6. 30. Press Release). 또한 저출산 기조의 우리나라 향후 병역자원은 2020년대 초

3) 이 자료는 병무청의 징병검사시 부모국적을 밝힌 병사들만 집계한 내용이다(Yonhap News, 2014. 11. 24.).

4) 2012년 7월 4일, 어머니가 일본과 베트남 출신인 2명(배OO, 한OO)의 하사가 임관하였는데 이중 한OO 하사는 중장비 관련 자격증취득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입대하였다.

5) 다문화장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4년 10월 13일 윤모 국회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의장에 대한 국감질의에서 다문화장병에 대한 국방부의 관심을 촉구한 일이 보도되었고, 2016년 6월 30일, 국회 국방위 상임위에서 열린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김모 국회의원이 ‘2010년 51명에 불과하던 다문화장병은 현재 776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 3,200명, 2022년 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정부 대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보도되기도 하였고(Jeonnamilbo, 2016. 7. 1.), 한국다문화방송 인터넷뉴스 2016년9월9일자에 다문화1호 국회의원인 이자스민 전 의원 아들이 2016년 9월경 육군 35사단에 입대하면서 이와 같은 다문화장병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반부터 연간 2~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어 다문화 장병의 입대증가는 중요한 한국군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이 영유아기와 학령기 다문화자녀에 집중되고 장기적인 대책이나 비다문화장병의 보다 근본적인 다문화수용성 제고대책은 없이 군복무부적응 및 차별예방 해소에 소극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Kim, Dong-chul blog, 2016. 6. 30. Press Release Reconfiguration).

4. 선행연구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한국군이 다문화장병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군대로 다문화되면서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문화장병을 보유한 다문화군대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선행연구는 크게 다문화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군의 역할과 과제를 찾고 다문화장병의 군 적응 실태를 파악하며 다문화장병에 대한 현역장병들의 인식태도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 있다. 특히 군입대전 청소년시기의 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군입대 후의 인식의 차이, 현역장병의 다문화장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차이가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Park(2016)은 청소년의 다문화군대 및 다문화장병 인식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다문화인식에 대한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 다문화 인식이 높았다(Park, 2016: 65). 따라서 군입대전 청소년의 다문화교육이 필요하고 다문화장병의 고충처리를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다문화멘토, 다문화군인가족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Park, 2016: 85).

Kim(2012)은 다문화가정 장병의 주된 부적응 요인으로 인접전우의 따돌림, 차별을 꼽았고 군내 적응을 위한 필요요소 역시 인접전우의 관심과 격려로 나타났

으며 계급이 높을수록 다문화장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경험이 있는 병사일수록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2: 35-38).

Kim(2010)은 강원도지역 육군병사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현역병사의 태도를 연구하였는데 앞의 연구와 동일하게 다문화 이해교육 경험이 있는 병사일수록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민족을 선호하는 병사보다 다민족을 선호하는 병사가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Kim, 2010: 38-40).

Kim(2014)은 군 조직구성원의 다문화 의식수준을 파악해 조직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육군부대를 조사하였는데 다문화사회와 구성원 등에 대한 접촉경험은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을 갖게 하고 교육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타문화에 대한 수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결론지었다(Kim, 2014: 28).

III. 연구설계

1. 변수의 연구상 정의

1) 다문화장병

다문화장병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개인의 가치보다 군 조직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개인의 우수성보다 팀과 동료의 단결이 필요하고 고된 훈련과 생사의 위험이 존재하는 임무수행을 하며 가정·사회와 단절되고 절제된 생활을 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각기 다른 성장배경과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과의 정신적·신체적 접촉이 많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장병은 2010년 7월 다문화가정 2세의 군복부 의무화 이후 한국군에 입대한 장병을 말한다.

2) 다문화경험

다문화경험은 현역장병의 입대전 다문화교육을 이수한 경험, 다문화가정과 접촉한 경험, 다문화행사에

참여한 경험, 외국여행을 다녀온 경험, 다문화장병을 실제 본적이 있는 경험으로 보았다.

3) 다문화인식

다문화인식은 다문화장병에 대한 현역장병의 긍정적·부정적 인식으로 이 연구에서는 Kim(2010), Kim(2012)의 조사설문을 변형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를 활용하였다.

4)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Hoopes(1979)의 수용성과 Bennett(1993)의 감수성 모형 그리고 Ahn, *et. al.*(2012)의 다문화수용성을 적용한 2011년 개발된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의 일반인용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활용하였다.

2. 가설

1)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장병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이 다를 것이다.

(1)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장병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이 다를 것이다.

- 연령, 성별, 계급, 재직기간, 학력의 차이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다를 것이다.

(2) 환경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장병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이 다를 것이다.

- 다문화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장병이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다문화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다문화가정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장병이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다문화가정과 접촉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다문화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장병이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다문화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용성이 높을 것이다.

- 외국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장병이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외국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다문화장병을 실제 본적이 있는 장병이 다문화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2) 다문화경험이 많은 장병이 다문화인식이 긍정적일 것이다.

3) 다문화인식은 개인적 특성과 다문화수용성의 사이에서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3. 표본 및 조사방법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군 특전사 장병 210명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조사 전 모의설문을 실시한 후 2016년 7월 4일부터 2016년 8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장병에 대한 연구의 특수한 상황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특전사 간부의 통제 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배부된 250개의 설문지 중 213개가 회수되었고 이중 부적절한 3부의 설문을 제외한 210부의 최종설문을 최종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SPSS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통계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했으며, 변수간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주요변인에 대한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문화경험이 있는 현역장병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가 높을 것이고 다문화수용성도 높을 것이라는 점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4. 연구모형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문화경험요인이나 군의 환경적 특성이 군인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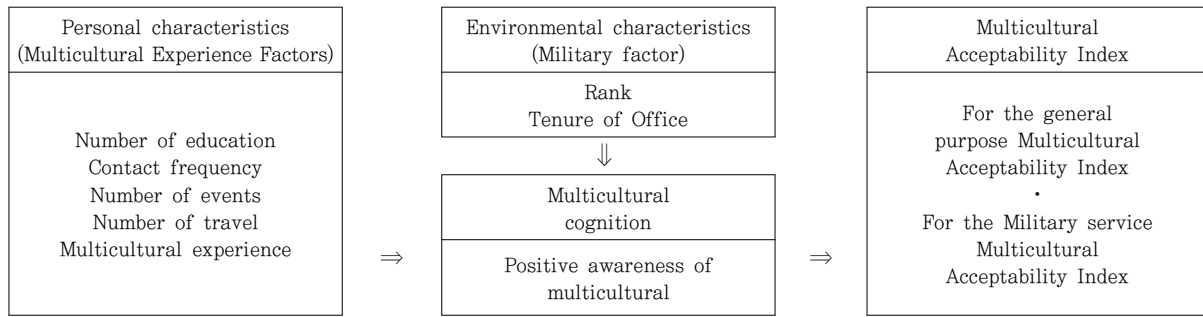


Figure 1. Model of research

와 교육경험, 여행경험, 행사참여, 접촉빈도, 다문화경험과 같은 다문화경험요인이나 군특성요인인 계급이나 근무연수가 비(非)다문화 군인에게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다문화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즉,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에서 간과된 다문화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점이 차별화된 부분이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20대가 86.2%, 30대가 7.1%, 40대가 5.2%, 50대 이상이 1.4%였으며,

계급은 일병 0.5%, 상병 3.3%, 병장 1.4%, 부사관 82.9%, 장교 11.9%이며, 재직기간은 1년 미만 11.0%, 1년 이상~3년 미만 33.3%, 3년 이상~5년 미만 25.7%, 5년 이상 30.0%이고, 학력은 고졸 40.0%, 대재 28.6%, 대졸 30.5%, 대학원졸 1.0%로 나타났다.

2. 차이분석

연령, 학력, 계급, 재직연한에 따른 다문화지수 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재직연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급별로는 신뢰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상병이 68.8371로 가장 높고 병장이 48.6067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sortation	frequency	percent(%)			sortation	frequency	percent(%)
age		20s	181	86.2	tenure of office		Less than a year	23	11.0
		30s	15	7.1			Less than three years for a year	70	33.3
		40s	11	5.2			Less than five years for three years	54	25.7
		Over fifty	3	1.4			More than five years	63	30.0
rank		private 1st class	1	.5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84	40.0
		corporal	7	3.3			While attending College or University	60	28.6
		sergeant	3	1.4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ion	64	30.5
		Noncommissioned officer	174	82.9			Graduate from grad school	2	1.0
		Officer	25	11.9					
sum			210	100.0	sum			210	100.0

Table 2. Differenti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sortation		frequency	average	deviation	F	Degree of Significance
age	20s	181	58.9744	11.3011	.371	.774
	30s	15	60.3609	11.1773		
	40s	10	57.9187	9.0917		
	Over fifty	3	53.2089	10.4820		
	sum	209	58.9406	11.1461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84	59.0361	10.7119	.131	.942
	While attending College or University	60	58.2389	12.2872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ion	63	59.4901	10.8861		
	Graduate from grad school	2	58.6750	3.5709		
	sum	209	58.9406	11.1461		
rank	private 1st class	1	78.0000	.	2.912	.023*
	corporal	7	68.8371	5.4854		
	sergeant	3	48.6067	22.1752		
	Noncommissioned officer	173	58.7370	11.2823		
	Officer	25	58.0565	7.6027		
	sum	209	58.9406	11.1461		
tenure of office	Less than a year	23	56.5252	11.1471	.788	.502
	Less than three years for a year	70	58.1225	11.0341		
	Less than five years for three years	54	59.7161	9.7488		
	More than five years	62	60.0850	12.3969		
	sum	209	58.9406	11.1461		

* Have meaning for $p < 0.0$

3. 가설의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연구 요인들에 대해서 서로의 방향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수치가 0.2~0.4이면 낮은 상관관계, 0.4 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상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ge	rank	Tenure of Office	level of education	Number of education	Contact frequency	Number of events	Number of travel	Multicultural experience	Multicultural cognition
rank	0.161*	1								
tenure of office	0.622**	0.216**	1							
level of education	.361**	.303**	.326**	1						
Number of education	.083	-.011	.021	-.009	1					
Contact frequency	-.054	.016	.007	-.104	.309**	1				
Number of events	-.024	.022	.138*	-.050	.189**	.209**	1			
Number of travel	.105	.067	.005	.163*	.182**	.148*	-.009	1		
Multicultural experience	-.091	-.044	-.012	-.192**	.214**	.346**	.102	.057	1	
Multicultural cognition	-.063	-.100	-.079	-.101	.185**	.227**	.077	.086	.244**	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012	-.144*	.103	.013	.198**	.113	.033	.083	.075	.510**

Table 4. Mediated verification for multicultural cogni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variable	Multicultural cognition (1phas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2phas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3phase)				
	B	t	Sig.	B	t	Sig.	Tolerance	VIF	B	t	Sig.	Tolerance	VIF
(constant)	5,107	7,029	.000	73,356	9,343	.000			45,230	5,895	.000		
age	.001	.071	.944	-.298	-1,812	.072	.557	1,794	-.284	-1,987	.048*	.557	1,794
rank	-.150	-1,139	.256	-3,649	-2,562	.011	.888	1,126	-2,896	-2,325	.021*	.886	1,129
tenure of office	-.066	-.713	.476	2,536	2,535	.012	.556	1,797	2,857	3,291	.001**	.555	1,801
level of education	-.024	-.255	.799	.617	.615	.539	.755	1,324	.740	.848	.397	.756	1,322
Number of education	.090	1,321	.188	1,880	2,536	.012*	.837	1,195	1,362	2,108	.036*	.830	1,205
Contact frequency	.109	1,699	.091	.475	.682	.496	.789	1,268	-.131	-.214	.831	.777	1,288
Number of events	.038	.371	.711	-.638	-.582	.561	.898	1,114	-.830	-.873	.384	.898	1,114
Number of travel	.049	.700	.485	.654	.865	.388	.913	1,096	.398	.606	.545	.910	1,099
Multicultural experience	.361	2,231	.027*	.120	.068	.946	.827	1,209	-1,818	-1,176	.241	.803	1,245
Multicultural cognition									5,493	8,233	.000**	.890	1,123
F	2,672			2,438					9,711				
Sig.	.006**			.012*					.000***				
R ²	.108			.99					.330				

관관계 분석결과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계수값이 0.8 이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단위들을 한 번에 두 개씩 추출하여 상관관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모든 상관관계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Challagalla & Shervani, 1996).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작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1단계 단순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2단계 단순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넷째, 매개변수를 포함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두번째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감소한 경우에

는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혀 없는 경우에는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Baron & Kenny, 1986).

개인특성과 다문화수용성지수간 관계에서 다문화인식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단계 회귀식 1에서 개인특성변수는 매개변수인 다문화인식에 다문화경험($\beta = .361, t = 2,231, p < 0.05$)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 첫번째가 충족되었다. 2단계 회귀식 2에서 교육 횟수는 다문화수용성지수($\beta = 1.880, t = 2,536, p < 0.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 두번째가 충족되었다. 개인특성변수와 다문화인식을 동시에 회귀식에 투입한 3단계 회귀식 3에서 다문화인식이 다문화수용성지수($\beta = 5,493, t = 8,233,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건 세번째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귀식 3에서 다문화수용성지수에 대한 교육 횟수의 영향($\beta = 1.880 \rightarrow \beta = 1.362$)은 회귀식 2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여 조건 네번째의 부분매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V. 결론

다문화시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다문화장병은 입대 전 청소년기의 심리적 혼란과 미성숙한 정체감, 사회적 편견, 인식부족에서 오는 갈등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고된 훈련과 임무수행, 사회와의 단절된 엄격하고 많은 규율을 지키며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신체적·정신적 부적응 상태 속에서 사건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장병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군의 역할과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군은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건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다문화장병이든 비(非)다문화장병이든 어느 쪽 한명이라도 부정적인 식이나 정체성의 혼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차별이 존재해선 온전히 군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급속히 다문화되고 있는 군대의 다문화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다문화장병을 진정한 군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배려하고 있는지, 다문화에 대한 단순한 이해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군내사고예방활동에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등의 위기의식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과연 다문화장병의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학계의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을 연결해 살펴보고 다문화인식의 매개역할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군대의 현역장병들에 대한 다문화장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문제제기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문화경험과 다문화교육이 많은 현역장병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게 갖게 되고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학력, 계급, 재직연한에 따른 다문화지수 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재직연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급별로는 신뢰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상병 68.8371로 가장 높고 병장 48.6067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경험, 여행경험, 행사참여, 접촉빈도, 다문화경험과 같은 다문화경험이나 군 특성요인인 계급이나 근무연수가 현역군인에게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다문화수용성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경험($\beta = .361, t = 2.231, p < 0.05$)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육 횟수는 다문화수용성지수($\beta = 1.880, t = 2.536, p < 0.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인식이 다문화수용성지수($\beta = 5.493, t = 8.233,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문화수용성지수에 대한 교육 횟수의 영향($\beta = 1.880 \rightarrow \beta = 1.362$)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부분매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현역군인의 다문화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에서 다문화교육, 다문화경험, 다문화행사의 횟수를 증가시킨다면 현역장병들이 다문화장병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다문화가 군대문화에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다문화수용성지수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각급부대에서 100% 모든 장병이 다문화장병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반병사 간 구타나 가혹행위 등의 빈번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현역병사에 의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고통받는 다문화장병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문화병사가 인간적 모델이나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분노표출로 군 사고를 유발하거나 미묘한 의사소통의 문제로 군조직의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조직 구성원 모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Sang Soo, Moo Suk Min, Sun Sun Kim, Myung Jin Lee, and Geum Mi Kim. 2012. *A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e Accepta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Ahn, Sang Soo, Yeon Sun Kim, Kyung Hee Ma, Hee Young Moon, and Myung Jin Lee. 2015. *A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e Accepta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Bennett, M. J. 1986.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Cross-cultural Orientation: New Conceptualizations and Applications*.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Berry, J. and R. Kalin. 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1991 National Surve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7(3): 1-128.
- Cha, Yong Guk. 2013. Korean Military's Roles and Missions in the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 Cho, Hyun Woong. 2016. Study o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orce Management of Korean Army Soldiers through Multi-Cultural Army Soldiers. *Strategic Review*. 23: 99-125.
- Choi, Kyung Woon. 2016. The Current States and Need Assessment of Multi-cultural Family Father Education Program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 Choi, Man Sik. 2013. An Analysis on Influence Factors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Teachers and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Goutam, N. Challagalla and Tasadduq A. Shervani. 1996. Dimensions and Types of Supervisory Control. *Journal of Marketing*. 60(1): 89-119.
- Hyun, Young Kwon. 2014.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Culture of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 Hyun, Young Kwon. 2016. Effects of Multi-Cultural Contact on Multi-Cultural Environment in Multi-Cultural Environments: Focus on the Regulatory Effect of Social Interest.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James, R. Chilles. 2008. *A Massive Catastrophe Invited by Mankind*. Transfer by Hwang, Hyeon Deok and Chang Mi Hong. Seoul: Surijangjae.
- Jang, Jin Ah. 2013.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dentity of Military Forces in Military Region in Military Region. Master's Thesi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Management.
- Jeonnamilbo. 2016. 7. 1.
- Kim, Ah Rang. 2013. A Study on the Attitude of Military Members to Soldier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Kim, Hye Suk, Doo Young Kim, Hee Chun Shin, and Ju Yeon Lee. 2011.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Koreans in Multi-Cultural Age: The Effects of Groups of Groups on Importability and Its Importation on the Bias of Immigrants to the Immigrants. *Journal of Korea Psychology*. 25(2): 66: 51-89.
- Kim, Ki Chun 2012. Military Service Management in the Age of Multicultural Family. Master's Thesis. Kyungb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Kim, Mi Ae. 2016.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 Children's Multicultural Attitudes to Multicultural Cultur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imhae. Master's Thesis. Gaya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Kim, Ok Jeong. 2014.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Consciousnes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the Multi-Culture System for the Disabl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Kim, Sim Kyung. 2010. A Study on the Behavior of Military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the Military Region in Gangwon Province.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eace and Security.
- Kim, Sung Gu. 2014.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Self-Oriented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 Societies on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Policy. Ph.D. Dissertatio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 Kookbangilbo. 2015. 5. 19.
- Kookbangilbo. 2016. 9. 12.
- Lee, Jae Hyun and Kyung Keun Kim. 2012. Determinants of Korean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cusing on the Effect

- of Educational Attainment. *Sociology of Education*. 22(3): 163-192.
- Lee, Jae Hyun Hyun Joon Park, and Kyung Keun Kim. 2014.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1(3): 5-34.
- Lee, Ji Young. 2012.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Workers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Christianity.
- Lim, Young Sub. 2015.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and Types of Multicultural Soldiers: Mainl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Master's Thesis. Shinh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 Welfar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 *Multicultural Perception, the Younger Generation Is better than Four Years Ago, and the Younger Generation Is Receptiv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Results of 2015. A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e Acceptance, Presentation Materia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6.3.14. Press Release.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6. *Current Status of Local Autonomy in Local Government Statistical Data(2015.1.1.Criteria)*.
-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6. 11. 16. Press Release.
- Park, Heung Jin. 2013. A Study on the Management Plan to Enlist in the Army of Multi-Cultural Officers and Men. Master's Thesi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Management.
- Park, Jae Yong. 2016. Study on ROK Armed Force's Response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Soldier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 Park, Kap Lyong. 2016.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Multicultural Military of Adolescents.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Republic of Korea*. 15(3): 65-90.
- Park, Shin Young 2016.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 Distance toward Multi-Culture on Acceptability of Multi-Culture.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 Park, Sung Jin. 2014. Multi-Culture Officers and Men Is a Valuable Personnel. *Weekly Trend 1079*(2014. 06. 10).
- Park, Wan Seo. 2011. A Study on the Preparations for Enlistment of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 Defense Policy Research*. 90: 1-31.
- Reuben, M. Baron and Davi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Yang, Kye Min. 2009. The Influence of Korean Ethnic Identity upon the Multicultural Receptiveness of Adolescents. *Korean Adolescent Research*. 20(4): 387-421.
- Yonhap News Agency. 2016. 6. 20.
- Yoo, Seung Bum.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ilitary Force Management in Multi-Cultural Age: Focus on Awareness of Multicultural Sensibilities of Multi-Cultural Officers and Men.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Yoon, In Jin and Young Ho Song. 2009. Business Establishment as a Self-Support Model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Centering on Civic Resources.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4(1): 25-44.
- Yoon, Sang Woo and Sang Don Kim. 2010.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Val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36(1): 91-117.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국방일보 2015년 5월 19일자. '성숙한 다문화 군대' 준비하자.
- 국방일보 2016년 9월 12일자. '국방부, 다문화장병 입영 증가 대비'.
- 김기춘. 2012. 다문화가정시대의 군복무관리방향.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애. 2016. 아동이 인지하는 부모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김해지역 초등학교 생을 대상으로.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구. 2014. 한국인의 다문화자아 정체감과 수용성이 다문화 사회 통합정책 정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심경. 2010. 다문화가정장병에 대한 현역병사의 태도: 강원도 지역 육군병사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랑. 2013. 다문화가정장병에 대한 현역장병의 태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진. 2014. 다문화사회구조변화에 따른 군조직구성원의 다문화의식수준 및 조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5(2): 51-89.
- 박갑룡. 2016. 청소년의 군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15(3): 65-90.
- 박성진. 2014. '다문화장병'도 소중한 병력자원. 주간경향. 2014년 6월 24일자 1081호.
- 박신영. 2016.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안서. 2011. 다문화장병입영에 따른 병영환경 조성방안. 국방정책연구. 90: 1-31.
- 박재용. 2016. 한국군의 「다문화가정장병」 증가에 따른 대비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진. 2013. 다문화장병 입대에 따른 지휘관리 방안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양계민. 2009. 한민족정체성과 자민족중심주의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387-421.
- 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인식, 4년 전보다 개선되고 젊은 층일수록 수용적. 여성가족부.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자료.
- 여성가족부. 2016년 3월 14일 보도자료 '다문화인식, 4년 전보다 개선되고 젊은 층일수록 수용적'.
- 연합뉴스. 2016년 6월 20일자. '국군, 2025년부터 다문화군대로 변한다'.
- 유승범. 2012. 다문화시대의 군인력관리 개선방안: 장병들의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우, 김상돈. 2010.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윤인진, 송영호. 20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활모델로서의 창업: '시민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25-44.
- 이자형, 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163-192.
- 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한국교육. 41(3): 5-34.
- 이지영.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섭. 2015. 다문화장병의 군생활 적응과정과 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2013. 육군입영 다문화장병의 군적응 실태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남일보. 2016년 7월 1일자.
- 제임스 R. 차일스 지음, 황현덕, 홍창미 옮김. 2008. 인간이 초대한 대형참사. 서울: 수린재.
- 조현웅. 2016. 미군의 다문화 군인관리제도를 통해 본 한국다문화장병 관리방안. 전략논단. 23: 99-125.
- 차용국. 2013. 다문화사회의 한국군의 과제와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운. 2016.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 및 요구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만식. 2013.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6년 11월 16일 보도자료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자료 (2015.1.1.기준).
- 현영권. 2016. 대학생의 다문화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유진. 2014.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현역장병의 군 사고예방을 위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장병 유입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다단계 단순무작위 표본추출한 특전사 장병 210명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19일부터 8월19일까지 실시하여 SPSS를 활용해 다문화 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연령·학력·계급·재직연한에 따른 다문화지수 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재직연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급별로는 상병이 가장 높고 병장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경험, 여행경험, 행사참여, 접촉빈도, 다문화경험과 같은 다문화경험요인이나 군 특성요인인 계급이나 근무연수가 현역군인에게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다문화수용성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개변수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경험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육 횟수도 다문화수용성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한다.

주제어 :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경험, 다문화인식

Profiles **Cheol Ho Yang** : He is currently serving as a military department professor at Cheongju University and served as a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third Civil Defense Brigade. Among concerns are national security, national crises, military science, leadership, command leadership, Northeast Asia situation, North Korea affairs, UN PKO, military affairs, etc. In a major Thesis :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Protection Assistance in Korean Overseas Disaster Crisis : A Case Study on the Renewal of Haiti Army Reconstruction in Korea(2013)"(y0300h@hanmail.net).

Sang Rok Park : He holds a doctorate in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eongju University(Thesis: The Impacts of Intelligence, Experience and Emotion on the Leadership Effectiveness under the Stressful Job Situations, 2009) and currently serves as a professor of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at Gangdong College, and the field of interest is police administration and Intelligence management(sangrok2254@hanmail.net).